

달아오른 '영산강 전선'... 이재명 태풍 vs 윤석열 돌풍

민주, 투표·득표율 올리기 총력 릴레이 지지선언 표심 결집 나서 국힘, 이준석 대표 흑산도 찾아 윤석열 내일 목표 유세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 유세에서 박상현 전 태권도 선수로부터 받은 도복을 입고 '코로나 위기'라고 적힌 송판을 격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상남분수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막판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살얼음판 접전 판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호남 민심을 둘러싼 '영산강 전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는 호남에서의 득표·투표율 제고 캠페인을 통해 '이재명 바람' 일으키기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22일과 23일 잇달아 광주·전남·전북을 방문하는 등 최근의 지지율 상승 기류를 '윤석열 돌풍'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기세다.

우선, 이재명 광주·전남 선대위에서는 호남 민심의 결집이 대선 막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표 및 득표율 제고에 총력전에 나선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추경안의 처리를 마치는 대로 회동을 갖고 이번 대선에서의 투표 및 득표율 제고를 위한 공조 전략을 마련한다.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지역구 골목 민심부터 다지는 한편, 지인 및 수도권 출향 인사들에 전화 걸기 등을 통해 투표·득표율 올리기 전략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계각층 인사들의 릴레이 지지 선언을 이끌어 과거 김대중, 노무현 후보 당선을 만들어

냈던 호남 민심의 결집을 다시 구현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전남도당 여성분부는 21일 1만 명 도민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송갑석 광주시장 위원장은 "호남의 민심은 위기에 결집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길 핵심 동력을 만든다"며 "조만간 호남 민심 저변에 이재명 바람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및 흑산공항 건설 등을 매개로 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의 공세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따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이준석 당 대표가 광주와 전남을, 23일에는 윤석열 후보가 전북과 전남을 차례로 방문한다.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불모지인 호남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최근의 상승세도 있지만 호남에서의 돌풍이 현실화한다면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당대표는 22일 오전 신안군 흑산도를 찾아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한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대표가 흑산도를 찾아 대선 유세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며 "흑산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 흑산도 주민들에게도 직접 설명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전남 방문은 지난 2월 2~3일 신안, 완도 등 다도해를 순회한지 3주만이다. 이 대표는 흑산도 유세를 마치고 광주로 올라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복합 쇼핑몰' 이슈를 두고 시민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남에선 섬 지역을 잇달아 찾아 연륙·연도교, 흑산공항 등 교통권 관련 민심의 아픈 곳을 파고드는 한편 광주에선 20~30세대를 중심으로 폭발적 관심을 보이는 '복합쇼핑몰'을 매개로 판을 흔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후보도 23일 전남을 찾아 김대중 정신 계승 의지를 밝히며 호남 표심 결집에 나선다. 지난

16일 광주송정매일시장 유세에서 '민주당 독점 수십 년 낙후된 호남' '복합쇼핑몰도 없는 광주' 등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민주당에 맹공을 퍼부은 이후 꼭 7주일 만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 유세를 마치고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를 찾는다. 오후 1시 목포역 광장에서 "국민이 키워주신 윤석열, 목포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는 구호를 내세워 유세를 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가 있는 하의도 방문길에 오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대선 여론조사 브리핑

이재명 43.7%·윤석열 42.2%... 오차범위 박빙

KSOI 조사...안 5.8%·심 2.7%

다자 가상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반 박빙의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1002명에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43.7%, 윤 후보는 42.2%를 각각 기록했다.

두 후보간 격차는 1.5%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내였다.

이 후보 지지율이 지난주 40.4%에서 3.3%포인트 상승한 반면, 윤 후보는 43.5%에서 1.3%포인트 하락했다. 당시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1%포인트였다. 이 후보는 4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2%포인트 하락한 5.8%,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0.8%포인트 하락한 2.7%로 집계됐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가 1.7%,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0.4%였다.

이 후보는 여성 지지율이 45.9%로 지난주 대비

5.9%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34.0%)에서 10.5%포인트, 50대(53.8%)에서 10.0%포인트 상승했다.

윤 후보는 60세 이상(57.5%)에서 4.4%포인트, 광주·전라(27.7%)에서 12.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여성(39.4%)에서 4.0%포인트, 서울(36.5%)에서 9.7%포인트 하락했다.

현재의 지지 후보를 투표일까지 계속 지지할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4.1%가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고, 13.5%는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는 긍정이 0.5%포인트 상승한 47.8%, 부정이 0.8%포인트 하락한 49.8%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8.5%로 지난주 대비 1.6%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4.0%로 0.5%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당(7.8%), 정의당(4.3%)이 각각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9.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KSOI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단일화 이슈 건넸다"... 이재명, 지지층 결집 반전 '하이킥'

지지율 상승 판세 변화 기대

발차기·격파 등 퍼포먼스에

尹 겨냥 공세 수위도 높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하이킥'을 날리는 등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결렬 수순을 밟으면서 선거 구도에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21일 TBS 라디오에서 "단일화 이슈가 건넸기 때문에 이제는 양 후보가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벌이는 과정으로 접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열흘이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자 구도에 따라 정권교체 여론이 분산되는 만큼, 지지층을 총결집하는 데 성공한다면 지지율 열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 1월 초 이후 6주 만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최근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이 후보가 이 조사에서 소폭이나마 앞선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반전의 계기를 잡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선대위 차원에서 '비상 체제'를 선언하고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다.

광주·전남지역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밤 10시까지 '뒷목 선거운동'을 벌이며 최대한 지역 주민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조직력을 풀가동해 홍보에 나서도록 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아직은 냉정하게 2~3%포인트 정도 뒤지는 상태라고 보지만, 지역 조직은 우리가 더 튼튼한 만큼 충분히 움직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유세 분위기는 일찌감치 공세적으로 바뀌었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전주 유세에서 "코로나 깨간한(조그만)거 확 해볼쳐 버리겠다"며 오른쪽 다리를 높이 차올리는 이른바 '부스터샷 하이킥'을 선보였다.

지난 20일 수원 유세에서는 태권도복을 입고 무대에 등장해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고통'이라고 적힌 송판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양복 차림으로 무대에 선 채 길게는 50분 가까이 강연하듯 청중과 '대화'를 주고받던 공식 선거

운동 초반과는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유세에서 내놓는 메시지도 짧아지는 대신 한층 강렬해졌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스마트 방역과 경제 부스터샷 주장 등 문재인 정부 방역정책과 차별화를 해온 그는 20일 유세에서 '불필요한 과잉 방역'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윤 후보를 겨냥해서도 "검찰 왕국의 왕", "거짓말로 뻔뻔히 속이는 사람" 등 점차 비판적 표현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전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윤 후보를 "좋은 분" 등으로 언급한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적당히장, 후안무치"라고 쓰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벌어지는 지지율 격차와 윤 후보의 '어퍼컷 세리머니' 등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추격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공세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원고를 그대로 읽는 스타일이 아닌 만큼, 내용은 현장 분위기에 맞춰 '본인 스타일'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http://www.greenfuneral.kr/

光州市민의 장례식장은, 그린장례문화원!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장의 名家

광주시청에서 10분, 용전사거리에 있습니다.

사전상담하시면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린장례식장 입소문 6선!

1. 호남-88-남해C 진출구 진국 어디든 사통팔달
2. 동시 주차 1천대 분관 일체형 주차타워
3. 동시 접대 350명 장공 등VIP객실 13개소 완비
4. 가격은 저렴하고 품격은 최고의 고감도 의전서비스
5. 세계김치문화축제 대통령상 수상 음식 맛 최고
6. 창업주 아너소사이어티 정회원 국민나눔대상 수상

상담문의 250-4455
광주광역시 하서로 663길 97(용전동 1213-17)